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한시와 그 의미

김 주 현*

- I. 서론
- II. 『북경중화신보』와 김창강의 한시
- III. 『중화신보』와 독립운동가의 한시
 - 1. 『중화신보』와 김기한의 한시
 - 2. 『중화신보』와 박경하의 한시
- IV. 『사민보』와 박경하의 한시
- V.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중국 근대에 중요한 신문으로 평가되는 『북경중화신보』, 『중화신보』, 『사민보』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작품 발굴에 나섰다. 중국의 주요 일간지로 꼽히는 이 신문들에서 이미 한국 문인들이 쓴 논설들이 적잖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들 신문의 마이크로필름을 뒤진 결과 『북경중화신보』에서 김택영의 시 1편을, 상해 『중화신보』에서 김기한의 한시 6편과 박경하의 한시 1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민보』에서도 박경하의 한시 1편을, 『藝林叢刊』에서 김택영의 한시 1편을 찾을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김택영의 활동은 어느 정도 밝혀져 있지만, 김기환과 박경하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kimjuh@knu.ac.kr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김창강과 김기한, 그리고 박경하의 한시를 중국 주요 신문에서 발굴해내고, 아울러 그들의 활동을 밝혀낸 것은 새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나라를 걱정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대의를 잃지 않고 우국충정을 노래했다. 김기한은 김국현, 정보, 추강, 직재 등, 박경하는 박병강, 박경산, 박경인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했다. 그것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일제 당국에 신분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독립운동가로 살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그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한시를 찾아낸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 문인들의 글이 중국 근대 매체에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조사도 뒤따라야 한다.

◆ 주제어

김택영, 김기한, 박경하, 중화신보, 북경중화신보, 사민보, 한시, 자료 발굴.

I. 서론

근대 초기 일본의 강점이 본격화되면서 수많은 우리나라 지사들이 중국으로 망명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에서도 문학 활동을 했다. 그런데 국문학 연구자들은 일제 강점기 중국 망명 지식인들의 자료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시기 중국에 망명한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발간한 신문 잡지는 대략 195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¹⁾ 수많은 신문 잡지들이 발간되었지만,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몇몇 신문 잡지들이 연구되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발간한 신문 잡지에 발표된 우리 근대 지식인들의 작품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 지식인들이 망명하여 중국 신문의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한 신문에 투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²⁾

중국 근대 신문에 발표된 한국 문학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까닭은 신문에 접근하는 데 따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자료를 뒤진 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근대 신문에서 한국인들의 시를 발굴 연구해보고자 한다. 특히 단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상해 『중화신보』와 『북경중화신보』, 그리고 박은식과 박경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1) 백완·김기석·송진한, 「中國에서 出版된 韓國雜誌에 실린 小說 試探—〈獨立公論〉, 〈革命公論〉, 〈韓民〉을 中心으로 한, 對韓·中 意識形成의 基底 探究」, 『중국인문과학』 28, 중국인문학회, 2004, 370쪽, 주 3번. 이 숫자가 어디에 근거한지 논자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자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신문 잡지가 150여종에 이르는데, 이로 볼 때 백완 등의 주장이 근사할 것으로 보인다.

2) 배경한, 「中國亡命시기(1910~1925) 朴殷植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 『향강잡지』, 『국시보』, 『사민보』의 분석」, 『동방학지』 12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227~270쪽.

김주현, 「중국신문 소재 신채호 논설의 발굴 연구」, 『중원문화연구』 1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0, 65~98쪽.

김주현, 「『중화보』 소재 신채호 논설의 발굴 연구 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6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45~88쪽.

『사민보』를 대상으로 하여 한시 발굴에 나서고자 한다. 아울러 작품 발굴과 함께 그들의 행적을 추적함으로써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II. 『북경중화신보』와 김창강의 한시

『북경중화신보』는 북경에서 발간된 신문이다. 장계란이 1916년 9월 1일 창간하였으며, 그것이 언제 폐간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현재 1916년 12월 1일부터 1923년 12월 9일까지의 신문 일부가 남아있다.³⁾ 이 신문에는 1916년 12월 31일(음력 12월 7일) ‘文苑’란에 ‘金滄江’의 <담려를 해상으로 보내며(送澹廬之海上)>라는 시가 실려 있다.

江南芳草喚詩人
辛苦年年去別羣
解語如今須介葛
請纓何日作終軍
拋擲圖書封碧蘚
飛騰鼓角夢黃雲
頑生已自羞溫序
更把殘拏苦累君

강남의 방초가 시인을 부르고
해마다 고생으로 무리들이 떠나네.
말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처럼 개갈을 필요로 하고
어느 날에 밧줄을 칭해 보국한 종군처럼 되겠는가
버린 책에는 푸른 이끼가 들러붙고
들끓는 북과 나팔은 변경을 뒤숭숭하게 하네.
미련한 나는 이미 스스로 온서를 부끄러워하고
더욱이 남은 처자로 그대를 괴롭히네.⁴⁾

그러면 김창강은 누구인가? 그는 김택영인가? ‘창강’이라는 호는 흔하고,

3) 『북경중화신보』는 현재 1916년 12월 1일(90호)부터 2월 1일(143호), 1917년 3월 11일(181호)부터 1917년 6월 3일(264호), 1917년 11월 13일(299호)부터 1918년 9월 24일(599호), 1921년 4월 1일(665호)부터 5월 31일(723호), 그리고 1923년 12월 9일(1605호)이 남아 있다. 1916.9.1.~1916.11.30.(1~89호), 1917.2.2.~3.10(144~180호), 1917.10.9.~11.12(265~298호), 1921.1.1.~3.31(600~664호), 1921.6.1.~1923.12.8.(724~1604호)는 신문이 소실된 상태이며, 1917년 6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1918년 9월 25일부터 1920년 12월 31일까지 휴간(사실상 정간)되었다.

4) 金滄江, <送澹廬之海上>, 『北京中華新報』 文苑欄, 北京中華新報社, 1916.12.31.

또한 이 신문은 북경에서 발간된 것이다. 김택영은 중국에 망명하여 주로 남통에서 살았고, 梁啓超도 滄江이라는 호를 썼으며, 중국에도 김씨 성이 있지 않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목에 나온 ‘담려’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文苑’란은 투고 작품을 싣는 난이고, 김창강의 <送澹廬之海上>에 이어 澹廬의 <聞寄伯授職南歸寄賀(二絕句)>가 실려 있다. 담려 역시 시인이며, 김창강과 함께 시를 실었다는 점에서 김창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사람으로 보인다.

澹廬: 徐鑿, 近代詩人. 字貫恂, 號澹廬, 南通人. 清貢生, 民國初隨其師張謇入京, 薦爲交通部官員, 數年後辭歸. 著有《澹廬詩》, 《碧春詞》; 編有《崇川詞證》.⁵⁾

그런데 중국 바이두(百度百科) 사전에는 ‘澹廬’가 서운(徐鑿), 곧 서관순의 호로 제시된다. 담려는 남통인으로, 청나라 유생(清貢生)으로 중화민국 초기 스승 張謇(1853~1926)을 따라 북경에 가서 교통부 관료에 추천되었으며, 수년 후 사직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중화민국의 저명한 수장가이자 시인으로 평가된다. 孔夫子舊書網(<http://book.kongfz.com/>)에는 그를 1885년 생으로 밝히고 있다. 아울러 김승룡은 그가 1936년 사망한 것으로 기록했다.⁶⁾ 창강(1850~1927)은 1883년 김윤식의 소개로 당시 서울에 와 있던

5) <http://baike.baidu.com/> 한편 공부자닷컴에는 더 상세한 정보들이 있다. 徐貫恂(1885-?) 號淡廬. 家住南通市寺街南首, 原宅內有園林花木扶疏. 他的收藏是多方麵的, 古錢、銅佛、銅鏡、碑帖、印章等所蓄均富, 尤其是古錢, 收很多珍品, 而且頗有研究, 不僅在南通, 而且在上海也有些名氣. 徐家有梅花山館藏古今名人字畫, 其中有石濤山水, 四王吳惲山水花卉真跡, 有吳昌碩為賀其四十壽作梅花圖軸. 徐傢原饒於資, 故購藏揮金不吝, 收藏益多. 一時傢中酬客詩酒唱玩多為地方耆宿和墨客騷人, 中年以後徐曾赴隴秦豫海鐵路總公所任祕書, 又喜結交大江南北文化名流及書畫傢, 傢藏梅花山館讀書圖, 一時名彥題跋者有潘曾植, 陳三立, 吳昌碩, 金滄江, 潘飛聲, 鄭孝胥等數十傢. 其著有《淡廬藏鏡》、《淡廬詩餘》、《碧春詞》及輯有《崇川詞徵》、《梅花山館圖詠》、《可圃詩鐘》等 http://book.kongfz.com/item_pic_164876_279514365/ (검색일: 2017.2.8.).

6) 김승룡, 「근대계몽기 김택영의 南通 생활에 대한 소고: 翰墨林印書局과 「桑麻閑話圖

장건을 만나게 된다.⁷⁾ 장건은 김창강의 시문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1905년 9월 창강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장건의 도움으로 출판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둘의 관계가 아주 각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운은 장건의 제자였으며, 창강과 서운의 만남도 예사롭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창강의 『소호당집』에는 서관순과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글이 여러 편 보인다.

<書徐淡廬扇>, 『韶濩堂集』 卷四 丁未(1907)稿, 13쪽.

<題淡廬所作荷花圖>, 『韶濩堂集』 卷五 壬子(1912)稿, 14쪽.

<澹廬詩卷題辭>, 『韶濩堂集』 卷六 跋 癸丑(1913), 12쪽.

<答徐貫恂牘>, 『合刊韶濩堂集』 補遺卷二 牌, 癸丑(1913), 14쪽.

<十五夜筍奇招同張峽亭楊穀孫徐淡廬諸君子玩月>, 『韶濩堂集』 卷五 甲寅(1914)稿, 21쪽.

<謝澹廬贈蠟梅折枝一束>, 『韶濩堂集』 卷五 甲寅(1914)稿, 22쪽.

<爲徐貫恂壽其母陸氏六十用貫恂韻>, 『韶濩堂集』 續卷一 壬戌(1922)稿, 5쪽.

<徐貫恂以消寒會不赴 責罰詩 率作>, 『韶濩堂集續』 詩癸亥(1923)稿 補遺卷一, 12쪽.

『소호당집』에는 서관순과 관련된 시와 문이 여러 편이 있다. 이 가운데 <澹廬詩卷題辭>에서는 둘의 우정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내가 관순을 안 이래 그가 어렸을 적부터 시 짓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시구에는 항상 고풍스러운 표현이 있었다. 성격은 더욱 온화 원만하며, 늘 즐겁고 편안했다……근래 관순이 상해에 가서 신학이라는 것을 배운 지 여러 해 되었는데 나는 그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잊은 지 꽤 오래되리라 여겼다. 하루는 그가 지은 시집 한 권을 보내주며 서문을 요청했다. 나는 그것

記」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36, 대동한문학회, 2012, 393쪽.

7) 광미선, 『김택영의 중국 망명시기 문학 활동 연구』, 보고사, 2013, 32쪽. 한편 광미선은 이 저서에서 김택영이 『남통보』에 실린 잡언들을 발굴하여 제시했다.

을 펼쳐 읽어보니 아름답고 빼어난 문장들이 시구에 섞여 빈번하게 보이며 옛 날에 좋아했던 것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진하였으니 이는 과연 무슨 영문일까? 自吾識徐貫恂以來 見貫恂年小好爲詩 往往有近古之語而性尤溫然樂易……近者貫恂適滬習新學者有年 余意貫恂於其舊所好者 忘之已久矣 一日投示其所爲詩一卷徵言 余披而讀之 名章秀句 錯出層見 不惟不忘舊好 而且有以加進 此何道也?⁸⁾

위 글을 통해 창강은 서관순을 어릴 적부터 알았고 그를 아꼈음을 알 수 있다. 창강은 1905년 남통에 갔는데, 서운의 나이 스무 살쯤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둘이 친하게 된 동기가 시 때문일 것이다. 『소호당집』에는 <書徐淡廬扇>이 실려 있는데, 창강이 이미 1907년, 그러니까 관순의 나이 22세에 그의 부채에 5언절구를 써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또한 1912년에는 <題淡廬所作荷花圖>라는 7언율시를 지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1913년 서관순은 창강에게 시집을 보내줬다. 그 시집이 『담려시여(澹廬詩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강과 담려가 비록 25세의 나이 차가 있었지만, 둘은 친밀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위 글을 쓴 것이 1913년인데, <담려를 해상으로 보내며>을 쓴 것은 1916년이다. 창강이 1912년부터 1914년 사이 담려를 위해 여러 편의 시문을 쓴 것을 보면 그 시기 둘의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교류는 창강의 말년까지 이어졌다.

<담려를 해상으로 보내며>는 북경에 머물던 서관순이 남통에 왔다가 떠날 때 창강이 써준 것으로 보인다. 서관순은 남통에서 북경으로 해로를 통해 가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김택영이 준 시를 서관순은 북경에 가져와 자신의 시와 함께 『북경중화신보』에 투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같은 날 서관순의 <聞寄伯授職南歸寄賀 二絕句>가 창강의 <送澹廬之海上>과 나란히 실린 것에서 확인된다.

8) 김택영, <澹廬詩卷題辭>, 『韶澗堂集』 卷六 跋 癸丑(1913), 1922, 12쪽.

9) 한편 김승룡은 그의 논문에서 1907년(丁未) 正月 19일 창강이 서관순과 張鳳年(峽亨), 張離年(峰石), 張增(益之), 黃開基(魯山), 那明(給生) 등 일곱 사람과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김승룡, 앞의 논문, 396쪽.

창강은 이 시에서 밧줄로 적을 사로잡아 종군처럼 보국하지 못함을 슬퍼했다. 여기에는 창강의 현실인식이 드러난다. 조국 조선이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침탈되었지만, 창강은 이역에서 멀거니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온서처럼 투항을 거절하고 자결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했다. 남통에 도피해 사는 자신의 처지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더욱이 남은 처자로 그대를 괴롭히네’라고 하여, 자신이 가족으로 인해 담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미안해했다. 창강은 장건 형제를 비롯하여 屠寄(1856~1921), 鄭蘇戡(1860~1938)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¹⁰⁾ 창강은 남통에서 생활하면서 서관순에게도 신세를 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에는 담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뿐만 아니라 망명해온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¹¹⁾

III. 『중화신보』와 독립운동가의 한시

1. 『중화신보』와 김기한의 한시

10) 광미선, 앞의 책, 51~55쪽.

11) 한편 창강은 『藝林叢刊』에 <奉題馮涵初先生種菜圖>이라는 또 다른 시편을 실었다. 이 시는 <題馮涵初先生種菜圖>이라는 이름으로 『韶澗堂集』(借樹亭雜收, 乙丑(1925)詩錄, 4쪽)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17행 治國太平策은 共和太平策으로, 20행 日鑄爲農器는 日銷爲農器으로 바뀌었다. 비록 이 시가 『소호당집』에 실렸지만, 그래도 원래의 시 형태를 갖추고 있고, <題馮涵初先生種菜圖>의 원시라는 점에서 발굴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膾樓記>를 『繁華雜誌』에 실기도 했다. 한편 김택영이 중국에서 만난 문인은 71명이 달하는데, 그 명단에 풍합초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韓國 金滄江, <奉題馮涵初先生種菜圖>, 『藝林叢刊』 第29期, 1925.8.1., 第2版; 金滄江(1915), <膾樓記>, 『繁華雜誌』 第6期, 19~20쪽; 莊安正(2005), 「金澤榮與近代南通文人群體交往考評」, 『南通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卷21 第4期. 그리고 중국잡지에서 한국인 한시를 찾던 도중 임정길의 <亡國吟>(『國民公論』, 1932)도 찾을 수 있었다.

《中華新報》는 1915년 10월 10일 상해에서 창간되어, 1926년 1월 16일 까지 발간되었다. 이 신문에는 곡종수(穀鐘秀), 양영태(楊永泰) 등이 주필을 맡았다. 이 신문은 중국 근대에 발간된 주요 신문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그런데 1919년 5월 10일 이 신문 <문원>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렸다.

섬 누각이 그윽한 곳에서 시를 읊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다. 잠시 병으로 인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생각하는 일도 번거롭게 막혔다. 바야흐로 보타산의 명승을 읊고 회포를 풀고 답답함을 씻으려던 참에 한국 김추강, 박경인이 지나는 길에 방문하였다. 鳥樓幽處 吟事久荒 頃因病秋 煩滯禪思 方擬詠普陀名僧 遺懷滌悶 酒蒙韓國 金君秋江 朴君景仁 過訪¹²⁾

태허는 자신이 머물던 곳에 김기한과 박경인이 들렀다고 했다. 태허(1890~1947)는 속성(俗姓)이 장(張)씨로 아명이 淦森, 학명이 沛林이었다. 당대 강유위, 양계초 등의 저술에 깊이 영향을 받고,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관련 서적도 적잖이 읽었다. 그리고 신해혁명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보타산 석린선원(錫麟禪院)에서 3년간 두문불출 수양을 하며 각종 저술을 하였다고 한다.¹³⁾ 태허는 1916년 가을 김기한, 박경산을 만나 시를 읊으며 회포를 풀었다. 그럼 김추강(金秋江)은 누구인가? 태허는 그의 이름을 김기한(金起漢)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짧게나마 그의 이력이 소개되어 있다.

독립운동가(1884~1921). 호는 직재(直齋).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해도 평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고, 1919년에는 대한독립단을 결성하였다. 1920년 국내에서 비밀 결사를 조직하려다 체포되어 옥사하였다.¹⁴⁾

12) 太虛, <丙辰秋 在普陀山和朝鮮金秋江 起漢 六首并序>, 『中華新報』, 上海中華新報社, 1919.5.8. 제3장 제4판, 文苑欄.

13)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 (검색일: 2017.5.30)

14)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6005900> (검색일: 20

한편 김기한에 관한 정보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더욱 자세하다. 그는 애국계몽기 평산 지방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1919년 11월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던 도중 순국하였다.

1905년 평산(平山) 지방에서 이진룡(李鎭龍)·조맹선(趙孟善) 등과 같이 의병활동을 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박장호(朴長浩)·조맹선·백삼규(白三奎)·전덕원(全德元) 등이 중심이 되어 유하현(柳河懸) 삼원보(三源堡)에서 동년 4월 15일에 조직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가입하여 사한장(司翰長)에 임명되었다. 1919년 11월에 도총재 박장호(朴長浩)의 밀명을 받고 국내 각도·각군·각면에 독립단의 지단을 설립함과 아울러 단원 모집, 군자금 모금 등의 사명을 띠고 황해도 해주(海州)로 들어왔다. 이곳을 중심으로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및 서울등지에 선전문서를 배부하고 단원을 확보하며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일본내에 거주하는 각 계층의 한국인에게 독립단에 협조하고 관리는 공직을 버리고 적을 섬멸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통고문 등을 작성 배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사실이 일경에 탐지되어 마침내 체포되었으며 1921년 9월 30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8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지독한 고문과 옥고를 치르면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동년 12월 9일에 개정된 경성복심법원의 재판정에서 "필부지지는 불가침(匹夫之志는 不可侵)"이라고 기염을 토하며 굳굳하게 버티었다. 그러나 끝내 8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¹⁵⁾

김기한은 류인석의 제자로서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재판정에서도 ‘나

17.2.8.).

15)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4卷，國家報勳處，1987，520~521쪽. http://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728&ipp=10000 (검색일: 2017. 3.30). 다만 그가 옥중에서 사망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연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국어사전』,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1921년으로,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미상으로, 『인명사전』(인명사전편찬위원회, 민중서관, 2002)에서는 1929년으로 제시했다.

의 뜻은 결코 침범하지 못하리라'라고 하여 기개를 떨쳤다고 한다. 『의암집』에 따르면, 김기한은 金國鉉이라는 이름과 함께 정보(鼎甫)라는 호를 썼다. 그리고 그는 秋江이나 直齋도 썼다. 위 글에서도 역시 3.1독립운동 이후 그의 행적은 자세하지만,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류인석의 문집에는 김기한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온다.

- <答金權翁>, 1909년 9월 『국역의암집-지』, 277~278쪽.
<次金鼎甫國鉉一名起漢 和人韻 기유(1909) 『국역의암집-천』, 173쪽.
<送金起漢 帶三書入中國> 『국역의암집-천』, 275쪽. 1912년
<聞金起漢同白賢復三圭張德中基正 八月入中國> 1912년 음력 8월 8일 『국역의암집-천』, 284쪽.
<再送金起漢中國>, 『국역의암집-천』, 306쪽. 1913.
<祭金權翁文> 갑인년(1914) 3월 16일 『국역의암집-인』, 318쪽.¹⁶⁾

류인석은 1908년 7월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했다. 김기한도 그 무렵을 전후해 러시아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그런데 1909년 8월 29일 편지에서 김기한의 행차로 이운서도 함께 자신에게 왔다고 하였는데, 당시에는 국내를 오간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리고 의암은 1909년 9월 <김권용에게 답하다(答金權翁)>에서 김기한(정보)이 “지금은 해서(海西)의 거의(擧義)에 달려가서 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곧 국내에 들어와 의병 활동을 했음을 말해준

16) 이 외에도 김기한과 관련해 『의암집』에는 <鼎甫咏春雪 爲步其韻>(기유(1909) 『국역의암집-천』, 174쪽), <次鼎甫有咏感吟>(기유(1909) 『국역의암집-천』, 175쪽), <李致三與鼎甫有詩往復 爲步其韻 以自誓志>(기유(1909) 『국역의암집-천』, 179쪽) 등의 시와 <答金鼎甫 國鉉>(을사년(1905) 6월 4일 『국역의암집-지』, 304쪽), <答金鼎甫>(을묘년(1915) 정월 7일 『국역의암집-지』, 306쪽) 등 여러 편의 서신, <示金鼎甫 起漢 金仁伯>(『국역의암집-인』, 97쪽)과 같은 잡저 등 여러 편의 글이 실렸다.

17) 유한철, 『류인석의 사상과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http://search.i815.or.kr/subGanhaeng.do> (검색일: 2017.4.30)

18) 류인석, 독립기념관 편역, <與車復元>, 『국역의암집-지』, 제천문화원, 2009, 154~155쪽.

다. 아울러 그 편지에서 “김정보는 재주와 의지 등 범백이 사우(士友)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가장 현능(賢能)하다고 일컬어지고 신복(信服)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¹⁹⁾ 그리고 1911년 6월 5일 의암이 김기한에게 보내는 편지(〈與金鼎甫〉)에 김기한의 병세를 걱정하며, 속히 치료하고 돌아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²⁰⁾ 1909년부터 황해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11년 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12년 3월 12일 박경하에게 보내는 편지(〈與朴景夏 炳疆〉)에서 중국의 신해혁명을 알아보려고 “정보(鼎甫:金起漢)를 보내고 싶은데, 이 일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물었다.²¹⁾ 김기한이 류인석과 함께 러시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2년에 류인석은 블라디보스톡이나 그 인근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권업회에서 수총재(首總裁)로 임명되었으며,²²⁾ 1913년 일본의 정보에는 그가 우수리스크 주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온다.²³⁾ 의암은 1912년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 함께 지내던 김기한이 편지 3통을 들고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전송하는 시를 썼고, 같은 해 음력 8월 8일 김기한이 현복 백삼규, 덕중 장기정과 함께 8월에 다시 중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시를 썼으며, 1913년 김기한을 다시 중국에 전송하며 시를 남기기도 했다.²⁴⁾ 이를 통해 김기한은 1912년 9월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1913년 다시 중국에 들어갔음을

19) <答金權翁>, 『국역의암집-지』, 277~278쪽.

20) <與金鼎甫> 『국역의암집-지』, 305쪽. 한편 류인석은 같은 날 <與朴子敬, 李雲瑞 錫大, 金中和 晚松>(辛亥 六月 五日, 『국역의암집-지』, 62쪽)에서 제자인 이석대(이진룡) 등에게 김기한을 잘 치료하여줄 것을 부탁했다. 이운서는 해서 지역 의병 및 독립운동가였다. 김기한은 1909년 황해도에서 이운서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6107 (검색일: 2017.2.30)

21) <與朴景夏 炳疆>, 임자년(1912)년 3월 12일 『국역의암집-지』, 257~258쪽.

22) <권업회 연혁>, 『권업신문』 35호, 1912.12.19., 제3면.

23) <루령 거류 조선인 문데>, 『권업신문』 73호, 1913.8.31., 제1면.

24) 의암이 김기한에게 보낸 처음 보낸 글은 1905년 6월 4일 <答金鼎甫 國鉉>(『의암집-지』, 305쪽)이 보인다. 『의암집』(『의암집-지』, 304~307쪽)에는 1911년 6월 5일, 1914년 5월 11일, 1914년 7월 5일, 1915년 1월 7일에 쓴 여러 통의 서신이 실려 있다.

확인할 수 있다. 1913년 7월 2일 <답박경하>에서 의암은 김기한(정보)이 중국에 갔다가 박경하의 서신을 갖고 러시아로 돌아왔음을 언급했다.²⁵⁾ 아울러 조만간 자신이 기초한 김권옹의 묘문을 갖고 김기한이 재차 중국에 갈 것이라 했다. 1914년 4월 편지에는 김기한이 중국에 가서 여러 차례 편지가 있었으며,²⁶⁾ 같은 해 7월 5일 편지에는 그가 심양과 북경을 거쳐 친진에 머물고 있음이 기술되었다.²⁷⁾ 그리고 1915년 1월 7일 의암이 김기한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보면 여전히 김기한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류인석은 1915년 1월 19일 연해주 목화촌(포시에트)에서 병사하였다.²⁸⁾

그런데 태허에 따르면, 병진(1916)년 가을(秋)에 김추강과 박경인이 보타산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보타산은 절강성(浙江省) 주산(舟山) 군도의 한 섬에 있다. 김기한과 박경인이 태허를 방문한 시기는 1916년 가을로 태허가 보타산에서 수도 정진하며 저술을 하고 있을 때이다. 아마도 그들은 태허의 명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한이 1914년 이후 줄곧 중국에 머물렀는지, 또는 러시아에 들어가 스승의 장례를 마치고 중국에 다시 왔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그가 태허를 만난 때는 스승의 타계 이후 1년여 지난 시점이다. 스승이 이국에서 병으로 떠났으며, 자신 역시 떠도는 신세였다.

김군은 또한 고맙게도 가작을 보여줬다. 그 가사가 주옥같았고, 그 음률이 금석 같았는데 사랑스러워서 차마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나에게 보여준 2수는 또한 얼마나 답답하고 편안하고 슬픈 가락이면서 강개하게 하는지…….
<천목산에 오르다(登天目西山山頂)>의 웅장함과 <보타에서 잠자다(游普陀

25) <答朴景夏>(계축년(1913년 7월 2일) 『국역의암집-지』, 258쪽.

26) <與朴公立 瑄采>(갑인년(1914년 4월) 『국역의암집-지』, 310쪽.

27) <答金鼎甫>(갑인년(1914년 7월 5일) 『국역의암집-지』, 306쪽.

28) <示金鼎甫 起漢 金仁伯>(『국역의암집-인』, 97쪽)은 의암이 1914년 11월에 쓴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정확치 않다. 그리고 그때 썼더라도 당시 김기한이 러시아에 있었는지, 아니면 중국에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12일 후인 1915년 1월 19일 의암은 타계했다. 김기한이 스승의 장례식에 참석했는지도 알 수 없다.

己自法雨寺來宿普濟寺>의 장려함, 이 모두 범속한 사람들이 쓰는 시가 아니었다. 대저 황주는 본래 진조에 흥망의 땅이었다. 그런데 김군은 조국(한국)의 지금과 옛날의 차이를 심하게 느꼈다. 두 눈썹은 푸르고 날카로우며, 육신은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기운(雲氣)을 지녔는데, 나(승)는 그것을 족히 이해할 수 없는 까닭에 의리가 장하고 그 소리가 애처롭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金君並惠示佳作 珠玉其辭 金石其音 愛不忍釋 見贈二首 抑何恬神靜 逸而又悲 歌慷慨耶 登天目之雄放 宿普陀之莊麗 皆非俗筆所能構 夫臨安本前朝 興亡之地 而金君有祖國今昔之感 翠蜂兩眉雲氣一身 僧無足以解之故 不禁言之義壯而聲哀也²⁹⁾

김기한은 태허에게 시 2편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담담하고 편안하며 슬픈 가락이면서도 강개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범속한 시가 아니었다고 했다. 태허는 김기한의 시와 박경하의 시를 『중화신보』에 소개했다. 만일 태허가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시보다 훨씬 많은 시를 소개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는 김기한의 한시에 대한 답시를 제시하면서 김기한의 원시를 여러 편 소개하고, 또한 박경산의 원시도 소개했다. 어쩌면 김기한과 박경하의 시를 알리기 위해 투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幽人不可見
夙昔一叩扉
寂寂尋無城
空空脫世機
晨門王子去
午枕周飛

은둔자는 볼 수 없고
진작부터 사립을 한번 두드리네.
외롭고 쓸쓸하게 성곽 없는 곳(無城)을 찾으니
공허하게 세상일을 벗어났구나.
새벽 문에 왕자는 떠나고
낮 꿈에 주공이 지나가네.³⁰⁾

29) 太虛, <丙辰秋 在普陀山和朝鮮金秋江 起漢 六首并序>,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1919.5.8.

30) 원문에 한 글자가 탈락되어 있으며, 그것은 周公(이거나 莊)주일 것으로 보인다. 『논어』 <술이편>에는 “子曰 甚矣吾衰也! 久矣吾不復夢見周公”이라는 구절이 있다. 공자가 꿈에 주공을 못 뵈는 지가 오래라는 내용이다. 공자는 주공을 성현으로 매우 추앙하여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했다. 후자로 볼 경우 장자, 곧 나비가 된 장자(胡

回憶人間事
白雲嶺上歸

인간사를 돌이켜보니
백운은 산위로 돌아가는구나.

江上秋瑟瑟
萬里一身孤
世事亂棋局
光陰催隙駒
周室仁人去
漢家壯士無
天時今若此
羨子脫桎梏

강위에 가을이 쓸쓸하니
만 리에 한 몸이 외롭구나.
세상사는 바둑판처럼 어지럽고
세월은 문틈으로 달리는 말을 보듯 빠르구나.
주나라 왕실의 어진 이는 떠나고
한나라 왕가의 장사는 없구나.
하늘의 때 지금이 이와 같은데
그대가 번영과 쇠락을 벗어남이 부럽네.³¹⁾

(奉贈太虛上人) <태허스님께 드림>

태허는 김기한의 원시를 제시하였는데, <태허스님께 드림>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 이 한시에는 김기한이 태허를 찾아온 상황과 태허를 부러워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태허가 속세를 떠나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세상은 왕자도 떠나고 꿈에 주공이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진 상황이다. 1차 대전의 발발과 일제의 한국 강점이 그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할 기미도 전혀 없다. 주나라의 어진 이가 떠나고 또한 한나라의 장사도 없기 때문이다. 곧 난국에 나라를 구할 인재가 없음을 한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과 쇠락에 벗어나 있는 태허의 모습을 김기한은 부러워했다.

櫛風沐雨十年秋
歎息光陰水若流
提戈未滅君王賊

떠돌며 갖은 고생한 지 10년의 세월
세월이 우수처럼 흐르는 것이 한스럽구나.
창을 들어 아직 군왕의 적을 멸하지 못했고

蝶夢)가 지나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하 시에 “周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31) 太虛, <附朝鮮金秋江(起漢) 原詩 六首>,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1919.5.10.

磨劍尙餘酋虜頭
臥龍底事渾忘囉
黃鳥無端重覓幽
天意人心今若此
茫茫宇宙使人愁

칼을 갈았지만 아직 오랑캐의 머리가 남았구나.
와룡은 무슨 일로 혼연히 빛을 잃고
황조는 까닭 없이 더욱 그윽한 곳을 찾는다.
하늘 뜻과 사람 마음이 이제 이와 같으니
망망한 우주는 사람에게 근심을 주누나.

(臨安道中有感作) <임안(항저우) 가는 길에 회포를 읊음>

列在男兒生世間
如何碌碌取安閒
縱橫萬里山河大
流落十年天地寬
也是興亡人得失
豈惟否泰理循環
此身百鍊已成鐵
歷盡風霜萬劫難

남아의 생이 세상에 놓여있는데
어찌 하잘 것 없이 편안하고 한가로움을 취하겠는가?
만리를 종횡해보니 산하가 크고
십년을 떠도니 천지가 넓구나.
흥망도 또한 인생의 득실인데
어찌 성쇠만 순환하겠는가?
이 몸이 수백 번 연마해 쇠가 되어도
온갖 풍상과 겁난을 두루 다 겪누나.³²⁾

(同上) <임안(항저우) 가는 길에 회포를 읊음>

한편 김기한이 항주로 가는 길에 쓴 것으로 보이는 위 시에는 자신의 회포가 들어 있다. 떠돌며 고생한 지 1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자신이 러시아와 중국을 떠돈 시기를 말한다. 그는 1908년경 러시아로 출국하였는데, 1916년은 거의 10년의 세월이 된다. 그는 1905년 의병운동을 펼쳤지만 이루지 못하고, 1909년에도 다시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창을 들어 아직 군왕의 적을 멸하지 못했고 칼을 갈았지만 아직 오랑캐의 머리가 남았구나”라고 했다. 세상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한탄했다. 태허는 김기한을 “생기가 빙설처럼 충만하며, 마음씨에 조금의 저속함도 없구나(生意冰雪滿 俠腸流俗無)”라고 했다.³³⁾ 김기한이 품은 독립에의 뜻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또한 그의 시가 강개하다고

32) 태허, 같은 글, 같은 곳.

33) 太虛, <丙辰秋 在普陀山和朝鮮金秋江 起漢 六首并序>,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1919.5.8.

하였는데, 아마 이 시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의암 역시 “의리가 우렁참은 오직 장량 제갈량에서 보고 도리가 명백함은 공자 맹자와 바꿀 만함을 알겠네(義磊落惟張葛見 道明白易魯鄒知)”³⁴라고 하여 김기환을 성현호걸로 칭찬했다. 곧 김기환의 강개함과 지사다운 품모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또한 김기환은 “어찌 하잘 것 없이 편안하고 한가로움을 취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홍망도 또한 인생의 득실인데 어찌 성쇠만 순환하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그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홍망성쇠도 순환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단련되었는데도 온갖 풍상과 겁난을 겪는다고 했다.

登來三萬九千尺
高坐雲間第一峯
舉手抑捫太乙座
低頭俯瞰憑夷宮
巖間老柏將成石
潭底神魚欲化龍
此日敢言天地小
八疆九野一望中

삼만구천 척 올라오니
구름 사이 제1봉이 높이 솟았네.
손을 들어 태을좌를 두드리고
고개를 내려 수궁을 내려보네.
바위 사이 늙은 잣나무는 장차 돌이 되려 하고
저수지 밑에 신기한 물고기는 용이 되려 하네.
이날 감히 천지는 좁다고 말하노니
은 땅과 하늘이 한눈에 보이네.
(登天目西山 山頂) <천목서산 꼭대기에 오르다>

來投普濟寺中宿
搜秘探眞漸底窮
十丈龍碑清主筆
百重鳳閣佛王宮
玉燭騰光連白晝
瑤花滿地動香風
仙僧不厭塵寰客
宿我殷勤披曲衷

보제사에 들러 잠을 자니
비밀스런 진리를 찾아 점점 궁극으로 들어가네
열 길 용비석은 청나라 임금의 글이요
백 겹의 봉황각은 부처의 가람이네
옥등불과 타는 불빛이 한낮까지 이어지고
기이한 꽃이 땅에 가득하여 향기로운 바람을 일으키네
선승은 속세의 손님을 싫어하지 않으니
나를 따사롭게 재워주며 진정을 다하네.

34) 류인석, 독립기념관 편역, <次金鼎甫國鉉一名起漢 和人韻> 기유(1909), 『국역의암 집-친』, 계천문화원, 2009, 173쪽.

(游普陀已自法雨寺來宿普濟寺) <보타에 노닐다가 범우사로부터 보제사에 와서 자다> 35)

나머지 2수는 김기한이 천목서산, 보제사 등을 둘러본 후 그 정취를 읊은 시이다. 전자는 천목서산에 올라서 쓴 시이다. 천목산(天目山)은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에 위치한 산이다. 천목산맥에는 천목서산(西天目)과 천목동산(東天目)이 있는데, 해발이 1,500m 전후이다. 특히 천목서산에는 세계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산의 도처에 오래된 삼나무와 소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 각종 나무들이 산재해 있다.³⁶⁾ 김기한은 이 산에 오른 감흥을 읊었다. 삼만구천 척 높이의 천목서산에 올라 하늘의 태을성 자리에 닿을 듯하고 멀리로는 수궁(馮夷宮)을 내려 보는 호활한 운치를 그렸다.³⁷⁾ 주변에 바위와 나무 저수지를 바라보고 “이날 감히 천지는 좁다고 말하노니 온 땅과 하늘이 한눈에 보이네”라고 했다. 천목 서산의 웅장함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태허는 이 시를 두고 ‘웅장’하다고 했다.

한편 김기한은 보타산의 범우사에서 보제사로 갔다. 그곳의 용비석과 봉황각, 옥등불, 기이한 꽃 등 화려한 모습을 그렸는데, 그래서 태허가 ‘장려하다’고 평가했다. 거기에서 “선승은 속세의 손님을 싫어하지 않으니 나를 따사롭게 채워주며 진정을 다하네”라고 하여 자신을 따듯하게 맞아주는 절의 인심에 감사해 했다. 태허가 보제사에 찾아온 김기한을 따듯하게 맞아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기한은 이 한시 6수 외에도 <남해추회(南海秋懷)> 9수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태허는 <김추강의 남해추회 9수를 읽고 제1수를 차운하다(讀金秋江南海秋懷 九首卽 次第一首韻)>라는 시를 썼기 때문이다. 그 시는 아래와 같다.

35) 太虛, <附朝鮮金秋江(起漢) 原詩 六首>,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1919.5.10.

36) [네이버 지식백과] 텨무산 [天目山 (천목산)] (두산백과).

37) ‘태을좌’는 “태을성’(북쪽 하늘에 있으면서 병란·재화·생사 따위를 맡아 다스린다고 하는 신령한 별)의 자리’을 뜻하며, ‘憑夷宮’은 ‘馮夷宮’의 오식으로 ‘물의 신 하백이 사는 곳’을 말한다.

海國秋高木落時
三閩憔悴九歌悲
文山正氣真松柏
武穆精忠炳史詩
敢勸英雄休自苦
終伸大義把天地
墮心隕涕人多少
不讀秦碑讀楚辭

해국의 가을 하늘 높고 나뭇잎 떨어질 때
삼려대부(굴원)는 초채하여 구가가 서글프다.
문천상의 정기는 송백을 곧게 하고
무목(악비)의 정충보국은 영사시(詠史詩)를 꽃피웠다.
감히 영웅에게 권하노니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고
마침내 대의를 펴서 천지를 잡기를 바라누나.
낙심하여 눈물 흘린 사람이 그 얼마인지
진회의 비를 읽지 않고 초사를 읽노라.³⁸⁾

이 시는 태허가 김기한의 <남해추회>를 읽고 첫수의 운을 따라 쓴 것이다. 제목에 따르면, 김기한의 <南海秋懷>는 모두 9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한이 적지 않은 시를 썼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시편들은 제목만 남아있지 신문에 실리지 않아 그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³⁹⁾ 다만 태허의 시를 통해 김기한의 시가 대강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태허의 화답시로 보건대 김기한의 시 역시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또 한편으로는 강개했을 것으로 보인다. 태허는 “문천상의 정기는 송백을 곧게 하고, 무목(악비)의 정충보국은 영사시를 꽃피웠다”고 하며, 김기한에게 괴로워하기를 그만두고 평생 대의를 펼쳐나가길 당부했다. “진회의 비를 읽지 않고 초사를 읽노라.”라는 구절은 망국의 상황에도 애국심과 충성심을 끝까지 잃지 않겠다고 노래한 것이다.⁴⁰⁾ 김기한은 굴원이나 문천상, 악비 등의 구국 애국의 정신을 높이 샀으며, 이에 반해 진회와 같은 간신을 타락자로 멀리한 것이다. 김기한은 태허가 자신의 시를 소개한(1919.5.10.) 후 몇 달 지난

38) 太虛, <讀金秋江南海秋懷 九首即 次第一首韻>,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1919.5.11.

39) 한편 김기한의 한시 9편을 찾기 위해 『太虛大師全書』(全35卷, 宗教文化出版社, 2004) 가운데 시문을 담은 31-34권을 모두 뒤져보았지만, 아쉽게도 찾을 수 없었다. 태허의 전집에는 김기한과 박경산의 시가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

40) ‘奏碑’는 진시황의 비로 볼 수도 있으나, 내용상 ‘문자의 옥’을 일으키고, 악비에게 누명을 씌워 죽인 진회(秦檜)의 비일 것으로 보인다. 악비는 정충보국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진회는 간신으로 비난을 받았다.

1919년 11월 국내에 들어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⁴¹⁾ 태허가 당부한 것처럼 평생 대의를 펼쳤던 것이다. 문천상이나 악비처럼 구국을 위해 힘쓰다가 아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 『중화신보』와 박경하의 한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허는 김기한과 함께 박경인이 찾아왔다고 했다. 태허는 “答朴景夏(卽景仁 又名 景山)”이라 하여 박경하의 다른 이름이 박경인, 박경산임을 분명히 했다.⁴²⁾ 박경하의 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런데 1908년 7월를 전후하여 류인석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한 인물 명단에서 김기한과 박병강이라는 인물이 발견된다.

박양섭(朴陽燮)·우병열(禹炳烈)·김재철(金載鐵)·김병간(金秉僑)·이남기(李南基)·박정빈(朴貞彬)·정인설(鄭寅高)·김상여(金商與)·김병진(金秉振)·차재정(車載貞)*·박문선(朴文璿)·박규승(朴奎承)·변승수(邊承洙)*·이진룡(李鎭龍)·심노술(沈魯述)·백진해(白鎭海)·최우익(崔于翼)·허승현(許承炫)·강진국(康進國)*·박이채(朴彝采)·박병강(朴炳疆)·김영섭(金榮燮)·안재희(安在熙)·김만송(金晩松)·안종석(安鍾奭)·박용근(朴龍根)·우문선(禹文善)·박승연(朴勝衍)·김기한(金起漢)·이병태(李炳台)·이석기(李錫驥)·허승렬(許承烈)·홍석우(洪錫禹)·백경환(白慶煥)·백승제(白崇濟)·김두운(金斗運)·한봉섭(韓鳳燮)·성시원(成時源)·김봉래(金鳳萊)·석진재(石鎭哉)·강철묵(康哲默)·김영희(金永禧)·이함(李涵)·김성룡(金性龍)·이동섭(李東燮)·변완규(邊完奎)·김동려(金東勵)·이중희(李重熙)·지희전(池熙銓)·박재눌(朴載訥)·정승규(丁承奎)·정홍규

41) “金起漢은 懲役 八個年 其他는 四年三年으로 中國吉林에는 大韓獨立團本部를 두고 京城에 總機關, 各道에 支團을 設한 後 軍隊를 募集하여 將次 國內에 進入할 計劃을 하였다는 金起漢等 十一人은 지난 九月三十日 京城敵地方法院에서 左와 如히 判決 되었더라.” 「判決事件一束-獨立團總機關事件」 『독립신문』, 1921.10.14., 2면.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그가 1921년에, 『인명사전』에는 1929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후자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2) 다만 이 제목에서 ‘朴景夏’를 ‘朴景夏’라고 오기했다. 『中華新報』, 上海中華新報社, 1919.5.11., 제3장 제4판, 文苑欄.

(丁弘奎)·강기복(康基復)·현경균(玄敬均)·한상설(韓相說)·문승도(文昇道)·박영실(朴永實)·이철수(李哲洙)·안수만(安壽萬)·방서봉(方瑞鳳)·강규복(姜圭復) (*는 1898년 망명 때의 동행자)⁴³⁾

『의암집』에는 <박경하 병강에게 보내다(與朴景夏 炳疆)>이라는 한시를 통해 박경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박병강이 확인된다. 박병강은 박경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의암집』에는 박경하의 이름이 몇 군데 등장한다.

- <答安聖天 載熙> 병오년(1906) 『국역의암집-지』, 268쪽.
- <朴道堦字說> 기유년(1909) 『국역의암집-인』, 110쪽.
- <答金權翁> 기유년(1909) 9월 『국역의암집-지』, 277~278쪽.
- <與車復元> 기유년(1909) 12월 3일 『국역의암집-지』, 156쪽.
- <與朴景夏 炳疆> 임자년(1912) 3월 12일 『국역의암집-지』, 257~258쪽.
- <答朴景夏> 계축년(1913) 7월 2일 『국역의암집-지』, 258쪽.

박경하 역시 중국에서의 삶의 흔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의암은 1906년 <안성천 채희에게 답하다(答安聖天 載熙)>에서 “박경하가 멀리 찾아와서” 편지 한 통을 전했다고 했다. 이때는 박경하가 국내에 있을 때로 보인다. 의암은 1909년 <박도훈 자설(朴道堦字說)>에서 박경하가 아들과 친구를 이끌고서 북해변(블라디보스톡?)에 자신보다 먼저 왔다고 했다. 이 글에서 의암은 박경하에게 성인(成人)의 예로 이름을 道堦으로, 자를 德汝로 지어주었다고 한다. 대개 스무살에 성인례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박경하가 1890년에 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권웅에게 답하다(答金權翁)>에서 “경하는 탁연히 의지할 만하여 사우들이 신복”한다고 하였다. 박경하는 중국에 있다가 1909년 8월 29일 러시아에 가서 의암한테 들렀다.⁴⁴⁾ <차복원에게 보내다(與車復元)>(기유년(1909) 12월 3일 편지)에서는 의암이 “박경하가

43) 유한철, 앞의 책, <http://search.i815.or.kr/subGanhaeng.do> (검색일: 2017.5.30)

44) <與車復元> 기유년(1909) 8월 29일 『국역의암집-지』, 156면; <答金權翁> 기유년(1909) 9월 『국역의암집-지』, 277~278쪽.

그곳(청나라 땅:인용자 주)에서 벌꿀을 치려고 하는데 들으니 적당치 않다 고”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박경하가 1909년 중국에서 벌을 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 갔다가 1910년 봄에 다시 스승을 만나기로 하였다.45) 그후 박경하는 다시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912년 3월 12일 <박경하 병강에게 보내다>에서 중국(中原)의 사정을 알고 싶어 김기한을 박경하에게 보내고 싶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박경하가 중국에 머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박경하에게 답하다(答朴景夏)>(계축년(1913)년 7월 2일)에서는 중국에 간 김기한이 박경하의 서신을 가져온 사실을 전하며, 박경하가 “요동 들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이미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으니 매우 잘한 일”이라 했다. 곧 박경하가 중국 요동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1914년 9월 16일 편지에서 의암은 자신이 쓴 중화 관계 글을 박경하가 천진에서 편집하여 800권을 찍어 배포하려다가 몽땅 압수당했다고 했다.46) 그리고 1916년 가을 그는 김기한과 함께 태허승을 찾았다.

南海太虛子	남해 태허자는
幾年掩石扉	몇 년을 돌문으로 가렸던고.
慈心超苦海	자비한 마음이 고탈을 넘어
靜思入玄機	조용히 기묘한 이치를 생각하네.
桐月懷中照	오동나무 위의 달은 마음속을 비추고
瑤雲筆下飛	아름다운 구름은 붓 아래 날리는구나.
我來一相見	내가 와서 다시 한번 만나보니
心醉却忘歸	마음이 취해 돌아감을 잊노라.47)

박경하는 태허승을 만난 상황을 위와 같이 읊었다. 태허가 두문불출하고 수행에 정진하는 모습을 그렸다. 태허는 정진하면서도 집필을 지속했다. 그러한 상황을 “오동나무 위의 달은 마음속을 비추고 아름다운 구름은 붓 아

45) <答金權翁> 기유년(1909) 9월 『국역의암집-지』, 277~278쪽.

46) <答李敬器> 갑인년(1914) 9월 16일 『국역의암집-지』, 43쪽.

47) 太虛(1919.5.11.), <附原作>,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래 날리는구나”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만나서 즐겁고 서로 의가 통함을 “마음이 취해 돌아감을 잊노라”고 했다. 이에 대해 태허도 화답했다.

喜逢海東客	기쁘게 해동(한국)의 손님을 만났으니
來叩南海扉	와서 남해의 삼짝을 두드리네.
沙蟲憑變幻	소인(沙蟲)은 변환에 맡기지만
魚鳥忘心機	군자(魚鳥)는 심기를 잊는다.
獵獵秋風起	가볍게 가을바람이 일어나고
茫茫落葉飛	아득하게 낙엽이 흩날린다.
人川兩無住	사람과 시내는 머물지 않고
總是不曾歸	결국 (한번 가면) 돌아오질 않네. ⁴⁸⁾

태허 역시 박경하를 만난 상황을 노래했다. 해동의 손님, 곧 박경하가 자신을 찾아와 기뻐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쉬워했다.⁴⁹⁾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과 회포를 주고받으며, 또한 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IV. 『사민보』와 박경하의 한시

박경하의 활동이 다시 드러나는 것은 1921년 『四民報』에서이다. 그는 1921년 『사민보』에서 박경산이라는 이름으로 王海州, 林秀山, 周嘯虬 등과 더불어 찬술원으로 활동했다.⁵⁰⁾ 『사민보』는 1921년 상해에서 발간된 신문

48) 太虛, <答朴(朴)景夏(卽景仁 又名 景山)>,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1919.5.11.

49) 2004년 태허의 저술을 모은 『太虛大師全書』가 宗教文化出版社에서 35책으로 간행되었지만, 이 전서에는 앞에서 언급한 김기한의 한시 6수와 박경산의 한시가 1수 모두 수록되지 않았다.

50) <本報同人表>, 『四民報』, 1921.10.1., 제1장.

으로 2년간량 발간되었다. 『사민보』 마이크로필름에는 1921년 10월 1일 발간되어 1922년 8월 29(?)일 폐간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⁵¹⁾ 이 신문은 林澤豊과 史允之가 총경리를 맡았으며, 喻血輪이 총편집을, 翁吉雲, 徐大純, 趙菴狂, 陳明權 등이 편집을 맡았던 중국신문이다. 1921년에는 『사민보』의 창간 때 한국인으로는 박경산이 찬술원으로 활동했고, 박은식이 번역을 맡았다.⁵²⁾ 박경산이 찬술원으로 활동한 것은 총경리인 임택풍과의 친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⁵³⁾ 그는 이 신문에 여러 편의 논설과 강설을 썼고, 또한 <추풍사>(『사민보』, 1921.10.5.)라는 한시를 실었다.⁵⁴⁾

51)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현재 『사민보』는 창간호에서 제3호까지 없는 상태이며, 제4호가 1921년 10월 1일 발행되었다. 그렇다면 1921년 9월 말에 창간호와 제2, 제3호가 발간되었을 것이다. 이 신문은 1929년 8월 29일까지 총 331호가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호수는 모두 152호이다. 현재 남아있는 호수는 10월 1에서 2일(4~5호), 5에서 6일(8~9호), 10에서 24일(13~24호), 27에서 11월 4일(29~37호), 8에서 14일(41~47호), 18에서 30일(51~63호), 12월 6에서 8일(69~71호), 11에서 24일(74~88호: 84호 건너뛰), 29에서 30일(93~94호), 1922년 1월 1일(96호), 4일(98호), 4에서 12일(100~106호), 14일(108호), 16에서 18일(110~112호), 2월 1일(120호), 4일(122호), 6일(124호), 8일(126호), 10에서 12일(128~130호), 16에서 19일(134~137호), 22일(140호), 26일(144호), 3월 2일(148호), 7일(153호), 10에서 11일(156~157호) 15에서 16일(161~162호), 19일(165호), 4월 4일(181호), 6일(183호), 9일(186호), 12일(189호), 15에서 17일(192~194호), 19일(196호), 21일(198호), 5월 5일(212호), 9일(219호), 11에서 12일(221~222호), 16일(226호), 24에서 25일(234~235호), 6월 10일(251호), 15일(256호), 17일(258호), 20에서 23일(261~264호), 26에서 7월 2일(267~273호), 6일(277호), 8에서 9일(279~280호), 17에서 18일(288~289호), 28에서 8월 1일(299~303호), 6에서 8일(308~310호), 11에서 13일(313~315호), 15에서 16일(317~318호), 23일(325호), 26에서 27일(328~329호), 29(331호) 등이다. 물론 남아있는 호수도 일부 낙장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호는 총 331호에서 4호(84호 건너뛰, 213호에 218호 사이 3호 건너뛰)를 빼면 모두 327호 가운데 175호이다. 보존된 호수보다 결호가 더 많은 형국이다.

52) 일본 정보에 따르면, “또한 박은식(朴殷植)·박시창(朴始昌)·박경산(朴景山)·박태하(朴泰河)(이상 평안북도), 황훈(黃勳-황해도)·김문세(金文世)·이영운(李英雲) 등이 사민보사(四民報社) 안에서 기와(起臥)하고” 있어서 이 신문을 한국인들이 경영한다는 오해도 있었다. 『高等 제28729호-재상해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상황(『朝鮮獨立運動』2, 1921.11.7.)』. <http://search.i815.or.kr/subContent.do> (검색일: 2017.5.30)

53) 배경환, 앞의 논문, 254쪽.

秋風瀟瀟潭光白
天開一鑑萬古心
龍蟄龜藏無痕迹
漁郎何處來相尋
水積千年雷聲發
地裂山開關重陰
乾坤此時神功奏
四國風定雨露深

가을바람은 소소하고 호수빛은 흰데
하늘이 연 한 개의 거울은 만고의 마음이니
용은 침거하고 거북이는 숨어 흔적이 없고,
어부가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서로 찾는가
물이 천년을 쌓여 뇌성이 일으키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열려 짙은 어둠을 열어젖히네
이때 하늘과 땅이 신공으로 연주하고
사방의 나라는 바람이 자고 우로의 은혜 짙어지네.⁵⁵⁾

박경산은 가을을 맞은 자신의 감회를 읊었다. 이 시기는 앞의 시와는 5년 정도의 시간적 거리가 있다. 앞의 기구는 가을날의 호수와 하늘의 정취를 노래했고, 승구에서는 자연의 상황과 인물의 현실을 비교했다. 용과 거북은 숨어 지내고, 어부가 만나 서로 찾고 사귀는 모습을 읊었다. 전구는 다시 물이 모여 우레와 같은 소리를 일으키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열려 짙은 그늘을 열어 보이는 것을 노래했다. 이런 와중에 하늘과 땅은 신비한 재주로 연주를 하고, 사방의 나라에 바람이 평정되어 우로의 은혜 짙어간다는 것이다.

1921년 바야흐로 사방의 나라들이 혼란은 잦아들고 마침내 우로의 은혜가 짙어간다고 노래했다. 일제 강점기 현실에서 혼란이 잦아들고 우로의 은혜가 짙어간다는 것은 당대의 현실이라기보다 시인의 바람을 적은 것일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 등 민중들의 독립운동 참여 열기와 역사적 희망이 분출된 시기이기도 하다. 박경산은 가을을 맞아 거대한 우주 변화의 흐름을 보며, 우리의 현실도 그에 부응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읊었다. 그리고 『사민보』 활동 이후 박경산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다.

54) 박경산은 『사민보』 1921년 12월 8일에 논설 <感言>을 썼고, 아울러 이 신문에는 박경산의 글로 1921년 10월 6일 <講說>(5), 12일 <講說>(6) 등이 남아있다. 박경산은 이 밖에도 많은 글을 썼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신문의 결호로 인해 더 이상 확인이 어렵다. 이 신문에 박은식은 논설 등 수많은 글을 썼다.

55) 景山, <秋風詞>, 『四民報』 제4장 제16판, 上海:四民報社, 1921.10.5.

V. 마무리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북경중화신보』와 상해 『중화신보』를 뒤진 결과 『북경중화신보』에서 김창강의 시 1편을, 그리고 상해 『중화신보』에서 김기한의 한시 6편과 박경하의 한시 1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민보』에서 박경산(박경하의 다른 이름)의 한시 1편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북경중화신보』, 『중화신보』에는 서관순과 태허가 그 시들을 직접 두고 및 소개했기 때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그들의 공이 크다고 하겠다. 중국 신문에서 한국인들의 한시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망명 지식인들이 중국 신문에 글을 실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행한 신문에 글을 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중국 신문에서의 우리 한시의 발견으로 중국 신문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기한은 일사늑약 체결 후 의병활동에 나섰으며, 1908년부터 중국, 러시아를 오가며 구국운동을 펼쳤다. 그는 1919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21년 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옥중에서 타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하 역시 을사늑약 이후 러시아로 망명했으며, 이후 주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1921년 『사민보』의 찬술원으로 활동했다. 『사민보』에서 박경산(곧 박경하)의 글이 여러 편 발견되지만, 1922년 이후 행적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 글의 발굴을 계기로 그들의 행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김창강과 김기한, 그리고 박경하의 한시 발굴은 그것이 중국의 대표 신문에 실렸다는 점보다도 이들의 자취와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큰 성과라 하겠다. 그들의 시는 중국에서 그들의 행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기한은 김국현, 정보, 추장, 직재 등으로 썼고, 박경하은 박병강, 박경산, 박경인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것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일제 당국에 신분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독립운동가로 살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중국 근대 매체에 우리 문인들의 한시뿐만 아니라 잡문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중화신보』, 『북경중화신보』, 『사민보』, 『권업신문』

곽미선, 『김택영의 중국 망명시기 문학 활동 연구』, 보고서, 2013.

김승룡, 「근대계몽기 김택영의 南通 생활에 대한 소고: 翰墨林印書局과 「桑麻閑話圖記」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36, 대동한문학회, 2012. 365~404쪽.

김주현, 「중국신문 소재 신채호 논설의 발굴 연구」, 『중원문화연구』 15,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0, 65~98쪽.

김주현, 「『중화보』 소재 신채호 논설의 발굴 연구 토론」, 『한국근현대사연구』 6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45~88쪽.

김택영, 『韶濩堂集』(전7권), 중국 남통: 翰墨林書局, 1922.

류인석, 독립기념관 편역, 『국역의암집』(전3권), 제천문화원, 2009.

배경한, 「中國亡命시기(1910~1925) 朴殷植의 언론활동과 중국인식 : 『향강잡지』, 『국시보』, 『사민보』의 분석」, 『동방학지』 12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227~270쪽.

백완·김기석·송진한, 「中國에서 出版된 韓國雜誌에 실린 小說 試探— <獨立公論>, <革命公論>, <韓民>을 中心으로 한, 對韓·中 意識形成의 基底 探究」, 『중국인문과학』 28, 중국인문학회, 2004, 369~398쪽.

유한철, 『류인석의 사상과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莊安正, 「金澤榮與近代南通文人群體交往考評」, 『南通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卷21 第4期, 2005.

太虛, 「丙辰秋 在普陀山和朝鮮金秋江 起漢 六首并序」,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1919.5.8.

太虛, 「附朝鮮金秋江(起漢) 原詩 六首」,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1919.5.10.

太虛, 「讀金秋江南海秋懷 九首即 次第一首韻」, 『中華新報』 제3장 제4판, 文苑欄, 上海中華新報社, 1919.5.11.

太虛, 『太虛大師全書』(全35卷), 宗教文化出版社, 2004.

Abstract

The Publication of Korean Poetry in Classical Chinese in Modern Chinese Newspapers and Its Significance

Kim, Ju-hyeon

This study focuses on Beijing Joonghwa Shinbo, Joonghwa Shinbo, Shaminbo which are considered as the major newspapers in Modern China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ublishing Korean literary works. Many articles written by talented writers were discovered from these newspapers. These newspapers are considered to be more inclined to publish Korean writers' works than any other newspapers. In this study, I have investigated Beijing Joonghwa Shinbo, Joonghwa Shinbo and Shaminbo to unearth the poem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by Korean writers such as Kim Chang-kang, Kim Ki-han, or Park Kyung-ha.

After examining the microfilms of the three aforementioned journals, one piece of poetry by Kim Taek-young was found in Beijing Joonghwa Shinbo, and in Joonghwa Shinbo 6 poems by Kim Ki-han and one by Park Kyung-ha. In addition to this, another poem by Park Kyung-san(another name of Park Kyung-ha) was found in Shaminbo. Kim Taek-young's activities have been relatively widely studied, but this is not the case for Kim Ki-han and Park Kyung-ha. It is important that Kim Chang-kang's, Kim Ki-han's, and Park Kyung-ha's poems were unearthed in renowned Chinese newspapers.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traces and evidence of their activities have been discovered.

They worried about the country and sang for loyalty without losing their consciousness in difficult circumstances. Kim Ki-han used pen names such as Kim Kook-hyun, Jeong Bo, Choo Kang, or Jik Jae. So did Park Kyung-ha, using pseudonyms like Park Byung-kang, Park Kyung-san or Park Kyung-in. It can be explained that these independence activists had to hide their true identity to the imperialist Japanese authorities. While they lived indeed as independence activists, there has been little or no concrete evidence of their achieve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researched some activities they had done. I hope there is more research about them.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iterary works of our writers have been widely published in the Chinese modern media, and a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se should follow.

key words : Kim Taek-young, Kim Ki-han, Park Kyung-ha, Joonghwa Shinbo, Beijing Joonghwa Shinbo, Shaminbo, Korean Poetry in Classical Chinese, unearthing of works.